

도덕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 공동체의 역할에 관한 종교사회학적 연구 - 뒤르켐, 앤더슨, 라캉의 이론을 중심으로 -

이 철 (숭실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필요한 개념 정리: 도덕성, 상상, 상징
- III. 버팔로 크릭 홍수 사건 보고서: 에릭슨
- IV. 상징, 의례, 공동체: 뒤르켐
- V. 상상의 공동체: 앤더슨과 라캉
 - 1.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론
 - 2. 라캉의 상징계, 상상계, 실재계론
- VI. 도덕을 위한 공동체의 존재와 역할
- VII. 나가는 말

• ABSTRACT •

A Sociological Study on the Role of Community in the Source of Moral
Life: Durkheim, Anderson and Lacan

Lee, Chull

This study is to show the fact that it is an 'imagined community'(Anderson's term) that makes the moral life of individual possible. Morality finds its source on the one hand in the inner voice like conscience and on the other in the hand, the outside voice from the community. This article concerns the latter. The morality is formed and maintained by the works of the ritual and its symbols that the community members perform in everyday life. This is well documented by the Anderson's work on nationalism. It is also supported by the concepts of the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scholars such as Freud, Winnicott, Durkheim, Bellah and Lacan, especially his concepts of the symbol and the imaginary. Though the community is imagined one, it has an imposing status to its constituents. The role and power of the imagined community is easily revealed when it happened to be de-constructed by the invasion of 'the real' in Lacan's term. Christian church, with its ritual and symbols, also creates the imagined one, and this community allows the church to work as an outer voice of moral authority to its members.

Key words: 'Imagined Community', Morality, Ritual, Anderson, Lacan

I.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삶은 두 영역의 작용으로 인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곧 내면으로부터 오는 양심의 소리 그리고 외부 공동체로부터 오는 권위의 목소리이다. 도덕성의 토대는 개인의 내면 그리고 외부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내면은 사회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지만 외부 공동체(그것이 일반 사회집단이든 종교 공동체이든)는 연구의 대상이 된다. 공동체가 개인들의 도덕성을 함양시킨다고 말할 때,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의미하는가? 도덕 교육을 수행하는 국가인가 혹은 신앙을 통해 도덕을 전하는 종교단체인가 아니면 밀착 훈육을 담당하는 마을이나 가족과 같은 친밀 공동체인가? 이 글은 통상 공동체로 간주되는 이 같은 형태의 범주를 벗어나 다른 형태의 공동체를 제시하면서 공동체와 개인의 도덕성과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에밀 뒤르캄(Emile Durkheim),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그리고 자크 라캉(Jacques Lacan) 등의 이론을 연결시키면서 특히 앤더슨의 개념인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를 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제시를 통해 본 연구가 피력하고자 하는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개인의 도덕성을 형성,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외부 공동체는 ‘상상된 공동체’로, 이 공동체는 상징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수행되는 집합 의례를 통해 만들어 진다. 이 공동체는 비록 상상된 공동체이지만 구성원들에게 끼치는 도덕적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 힘의 존재와 크기는 상상된 공동체가 유지될 때보다 와해되거나 약해질 때 오히려 잘 드러난다. 도덕적 혼란 혹은 무규범 상태가 확연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의 속성이 상상의 산물이기에 공동체는 쉽게 흔들리고 해체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상상된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이 개인의 도덕적 삶을 위해 필요하다는 역설이 제기될 수 있다.

II. 필요한 개념 정리: 도덕성, 상상, 상징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에서 언급하는 도덕성, 상상, 상징 등에 대해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도덕성이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판단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준수하는 자질 혹은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도덕성은 높은 수준의 도덕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타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일반적인 수준의 가치, 규범, 질서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일반적 수준의 도덕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후 연구될 대상이 일반 사회 혹은 일반 개인들이기 때문이다.

상상은 쉽게 파악하거나 어려운 단어이다. 이유는 이미 이 단어에 다양한 의미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 글에서 상상은 정신분석학의 측면으로 접근되기 때문이다. 먼저, 상상은 흔히 말하는 판타지와 다르다. 망상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환상에 가깝다. 그러나 환상이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판타지와 유사하기에 결국 이 용어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상상이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기술한 ‘포르트.다’(fort-da) 사례에 나오는 실패와 관련된 아동의 상상을 의미한다. 이 아이는 실패를 실에 묶어 던졌다 잡아당기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엄마의 현존과 부재를 놀이로 승화시키는데, 이를 통해 엄마의 부재로 인한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얻고자 시도한다. 여기서 실패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는 엄마의 오고 감을 실패를 보내거나 끌어당기는 행위로 치환(혹은 은유화)시키면서 ‘엄마는 갔지만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상상된’ 안정감을 얻는다.¹⁾

1) Joel Dor, Introduction a la lecture de Lacan, 홍준기, 강응섭 역, 『라캉 세미나·에크

아이는 그간 엄마의 부재에 수동적으로 반응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상징 작업을 통해 엄마의 부재 상황을 능동적으로 다루면서 부재가 가져오는 문제를 극복한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는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며-더욱 중요하게는-상징을 통해 상상된 어떤 상태를 확보하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실패를 반복적으로 던지고 끌어당기는 행위는 초기 수준의 의례(ritual)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상과 상징의 관계는 대상관계 이론가 도널드 위니컷(Donald Winnicott)의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 이론에서도 발견된다.²⁾ 중간대상은 어린 아이가 부모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때 아이가 집착하게 되는 대상이다. 아이는 대상을 자기 주변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이불, 베개, 인형, 장난감 등이 중간대상이 된다. 때로는 추상적인 것들, 예를 들어 말소리나 음악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이는 필요시 이러한 대상들을 활용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고자 한다. 이 모든 중간대상들은 프로이트의 '실패'와 같이 어떤 것을 대신하는 상징들이다. 그것들은 결코 그것들 자체가 아니다. 아이는 이런 대상을 사용하여 '상상된' 어떤 상태를 상징하면서 그 안에서 부모의 부재를 극복하는 것이다.

라깡 역시 상징과 상상에 주목하였고, 더 나아가 상징계(the symbolic)와 상상계(the imaginary)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라깡에게 상상은 소위 '거울단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³⁾ 유아는 성장하면서 두 '거울'을 만나게 되는데, 실제 물리적 거울 그리고 자신에 대해 말해주고 알려주는 주변 사람이라는 '거울'이다. 이 거울들을 통해 유아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상상된 자아이다. 실제 자아가 아니라

리 독해 1』(서울: 아난케, 2009), 145-148.

2) 이에 대해서는 Donald Winnicott, *Playing and Reality*, 이재훈역, 『놀이와 현실』(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1장을 참조하라.

3) 강응섭, 『자크 라깡의 『세미나』 읽기: 파리 생탄병원에서 행한 세미나들(1953. 1. 13~63. 7. 3)』, (서울: 세창미디어, 2013), 33.

거울(타자)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그의 모든 모습 혹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 물리적 거울에 나타난 자아는 좌우가 바뀐 자아, 뒤가 없는 자아이며 혹 거울에 얼룩이 있거나 금이 갔다면 거울에 비친 모습도 그렇게 보인다. 주변 타자들은 유아에게 ‘좋은’ 내용의 말을 주로 한다. 유아는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라캉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아를 ‘이상적 자아’라고 호칭한다. 자아는 이렇듯 거울이나 타자의 상징(언어)을 통해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이것이 실제 자기라고 생각하기에 그가 살고 있는 삶은 상상의 삶 혹은 상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상은 상징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진 일련의 정신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유아나 개인들은 이를 통해 지금 직면한 혹은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존재의 문제를 극복하거나 잊고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상상은 인간 존재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상된 것은 상징을 매개로 형성된 어떤 것이지 실제도 아니고 실체가 바뀌어져서 된 어떤 것도 아니다. 따라서 상상된 내용과 별개로 실제 그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실체가 자신을 드러낼 때 상상된 내용은 쉽게 와해된다. 라캉은 이를 실재계(the real)의 침입이라고 부른다.⁴⁾

다음 장에서는 미국의 한 공동체가 겪은 재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재난으로 인해 구성원들은 심한 집단 외상(trauma)을 겪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들이 생각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었는가? 그 공동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 유지되었는가? 개인의 도덕에 대한 이 공동체의 비중과 역할은 어떠

4) 라캉의 상징계, 상상계, 실재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ean Homer, *Jacques Lacan*, 김서영역, 『라캉 읽기』(서울: 은행나무, 2005) 1, 2, 5장과 임진수, 『상징계-실재계-상상계』(서울: 파워북, 2012)을 참조하라.

하였는가? 최종 결론의 일부를 먼저 말한다면 재난 이전에 그들이 공유하고 향유하던 공동체는 ‘상상된 공동체’였다.

III. 버팔로 크릭 홍수 사건 보고서: 에릭슨

사회심리학자 카이 에릭슨(Kai T. Erikson)은 재난 사고와 관련된 기념비적 연구 보고서를 남겼다. 이 연구는 그가 1972년 2월 26일 미국 버팔로 크릭에서 발생한 댐 붕괴 사건 이후 댐 아래 있는 마을을 방문하여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연구이다. 그는 특별히 사고 후 발생한 외상에 집중했는데, 개인 외상 외에 집단 외상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먼저, 사고 개요에 대해 서술해보자.

댐 붕괴는 아침 일찍(8시 5분) 발생하였다. 붕괴 징조가 있었으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났고 이로 인해 극히 짧은 시간에 546채의 집이 완파되고 943채의 집에 훼손되었으며, 주민 125명이 사망하고 1,100명이 부상당하였다. 당시 약 5천명의 주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석탄 회사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직업이 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은 안락한 삶을 영위하였다. 사고 후 사람들은 이때를 “안정되고, 정직하고, 편안한 삶”(a secure, honest, comfortable life)이었다고 회고했다.⁵⁾ 그러나 댐 붕괴는 이러한 삶을 쓸어갔다.

사고 후에 수습과정에서 정신과 의사들은 외상 후 정신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생존자 615명을 1년 반에 걸쳐 상담하였는데, 그 중 93%에 해당되는 570여명이 불안, 우울, 공포, 절망 과 같은 증상을 갖고 있었다. 그밖에도 이런 사건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 상실감, 죄책감, 무력감, 아

5) Kai Erickson, *Everything in Its Path: Destruction of Community in the Buffalo Creek Flood*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6), 24.

노미 등이 나타났음이 보고되었다. 피해자들은 또한 자연이나 사회적 질서에 대해서도 혼돈을 겪었는데, 사고로 인해 자연의 질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고, 국가나 탄광 회사들의 예방이나 대처에 대해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은 자신이 속한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게 되었다. 이 모든 증상들은 주민들이 심각한 개인적 외상을 입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전형적인 지표였다.

이상의 개인적 외상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하게 됨에 따라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때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에릭슨은 이런 특별한 경우를 버팔로 크릭 참사에서 발견했다. 2년 후 다시 목격된 버팔로 마을은 “사고 직후 같이 황량하였고, 슬픔도 짙었고, 두려움도 심했고, 불안도 강했고, 절망도 깊었다. 아직도 사람들은 멍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고, 불확실하고 침체된 모습으로 이리 저리 떠다녔다. 그들은 좀처럼 웃지도 놀지도 않았다.”⁶⁾

이렇듯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설명은 이들에게 이미 정신병적 질환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적절치 않는 설명이고 에릭슨 역시 이 의견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에릭슨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그것이 개인적 외상을 넘어선 집단 외상이다. 그는 버팔로 계곡에서 발생한 재난의 정도가 다른 재난들 보다 심하기 때문에 집단 외상까지 살펴봐야 진정되지 않고 계속 잔존하는 증상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외상의 핵심 원인은 공동체의 상실이다. 댐의 붕괴로 말미암아 붕괴된 것은 집이나 가정 등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것들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파괴되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에릭슨은 다음의 현상에 주목한다.

6) 위의 책, 183-184.

연구를 위해 수천 쪽의 피해 증언 문서를 검토하면서 직면한 가장 곤란한 문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마치 대본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공통적인 차원이 있어 그것이 모든 피해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암시한다. 에릭슨은 이 공동 차원이 곧 공동체의 상실이라고 소개하면서, 공동체 상실이 피해자들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에게 공동체는 단순히 집단이 아니라 실은 '세상 전부'(the whole world)이다. 사람들은 이 공동체(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원천을 공동체로부터 얻는다. 그런데 재난 사고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경험케 한다. 에릭슨은 말하길, "공동체가 없어지면서 세상도 함께 사라져버렸으며, 이로 인해 공동체는 더 이상 개인을 지지해 줄 원천으로 작동할 수 없었다."⁷⁾ 버팔로 피해자들은 '이제 나 혼자다'라는 진술을 하곤 하였다.

공동체의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중 도덕성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에릭슨은 "도덕 기준들이 그 계곡에서 극도로 약화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마치 집들이 마을 밑으로 쓸려 내려간 것처럼 도덕적 토대가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⁸⁾ 그리하여 이전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하지 않던 행위들이 이제 개인들이 공공연히 하게 되었다. 음주와 마약이 유통되고, 도난 사고가 증가하고, 불륜 행위들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들의 비행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분명히, 이전에는 탈선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2년 만에 다시 살펴본 그곳에서 비도덕

7) 위의 책, 199. "재난 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세상 어디에 속해있는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아는지에 대해 확신 있게 대처하지 못하였다." 위의 책, 210.

8) 위의 책, 205.

성은 확연히 증가되고 있었다.⁹⁾

에릭슨은 이런 현상이 발생한 연유를 도덕성의 토대에 관한 설명으로 접근한다. 도덕성은 내면의 양심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권위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전자는 후자로부터 자양분을 얻는다. 다시 말해 후자의 목소리는 전자를 지탱해준다. 버팔로 계곡에서는 “이러한 외부 목소리가 사라져버렸던 것이다.”¹⁰⁾ 사람들은 자신들을 고정시킬 공간을 잃었고, 도덕적 근거를 놓을 안정되고도 적절한 지점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소지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안정되고, 정직하고, 편안한’ 삶은 사라진 것이다.

버팔로 사태에 대한 이상의 보고서는 공동체의 부재가 개인의 도덕적 토대의 상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의 도덕성은 그녀가 속한 공동체에 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를 근거로 공동체의 부재는 비도덕적 개인을 양산한다고 서술할 수도 있다. 도덕적 토대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이 같은 논의는 공동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개인의 도덕성을 가능케 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탐구를 요청한다. 뒤르켐의 상징과 의례의 연구는 버팔로 주민들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IV. 상징, 의례, 공동체: 뒤르켐

사회학자 뒤르켐은 프랑스 사회의 해체를 직접 목도하면서 공동체의

9) 위의 책, 208-209.

10) 위의 책, 209. 전자의 목소리가 후자를 지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에릭슨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유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한다. 그는 호주 토착민 공동체의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한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간파하였다. 그가 주로 연구한 부족은 아룬타(Arunta) 부족이었는데, 이들은 유목민들이어서 각기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뒤르켐은 이런 개별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한 공동체를 이루며 공통의 규범, 질서, 신념 등을 공유하고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가 초점을 맞춘 것은 그들의 종교인 토템 종교였고, 특히 그 종교의 의례에 관심이였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신념체계, 의례 체계 그리고 회중이다. 그리고 종교를 연구할 때 대부분 우선시 되는 연구 대상은 신념체계이다. 그러나 뒤르켐은 사회학적 시각을 발휘하여 의례 체계에 주목하였고, 그것도 의례의 내용 보다는 의례의 기능에 연구의 무게를 두었다.¹¹⁾

그는 의례 연구를 통해 집합 행위(collective behavior)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집합 행위는 그의 이론에서 개인 행위와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다수가 동일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토템 종교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그에 해당된다. 이런 집합 행위는 그 하위 요소로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집합 표현(collective representation), 집합 감정(collective sentiment) 그리고 집합 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이다.

이중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집합 표현으로, 이는 다수의 개인들이 동일한 표현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템과 관련된 춤과 노래를 한다든지, 기도를 하기 위해 손을 모은다든지, 경전을 펴서 읽거나 듣는 행위 같은 것이다. 이런 집단 행위는 개인감정을 넘어서는 집합 감정을 동반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집단 흥분과 같은 과도한 분위기로 나타

11) 오경환, 『종교사회학: 개정판』(서울: 서광사, 2006), 244.

날 수도 있고, 이보다는 차분하나 구성원들이 동일한 감정을 공유하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집합 감정과 집합 표현은 마침내 집합 의식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 역시 개인의식과는 상이한 것으로, 그것은 개인들 안에 있는 개인의식을 물리나게 하고 그 자리에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개별 주체들은 의례 속에서 개인의식을 벗어나 집합 의식으로 채워진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되고, 결국 모래알 같이 흩어질 수 있는 개인들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아지면서 사회는 구성,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뒤르켐은 사회학적 통찰력을 한 단계 더 높인다. 그는 아룬타 부족의 토템 종교 의례를 통해 성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한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성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그 의례에서 숭배되고 있는 토템이라고 볼 수 있으나, 뒤르켐은 토템은 단지 상징이라고 지적한 후 실제로 숭배되는 것은 그 토템이 상징하는 사회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 의례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스럽고 가치 있게 숭배되는 것은 사회 공동체이고 토템은 단지 그것의 상징일 뿐이라는 것이다.¹²⁾ 이를 쉽게 풀어쓰면, 국기를 향해 집단 경례를 하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간주되고 숭상되는 것은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토템이 상징하는 국가나 민족 같은 공동체는 눈에 보이거나 만져질 수 있는 실체를 가진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부족 구성원들이 집합 의례 중에 상징을 매개로 해서 생성한 상상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된 이 공동체는 성스럽고 가치 있게 숭상되므로 그 공동체의 존재, 규범, 신념, 정신 역시 동일하게 성스럽고 중요하게 여겨진다.¹³⁾

12) 오경환, 위의 책, 249-250. 이 경우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 (society as an object)으로 생각할 수 있다.

13) 이에 대해서는 이철, 『욕망과 환상: 한국교회와 사회에 관한 문화사회적 탐구』(서울: 시대의 창, 2014)중 6장의 내용인 숭례문 전소 사건을 참조하라. 이 글은 숭례문이라는 '토템'을 '참배'하는 집합 의례를 통해 실제로 '성스럽게' 숭배된 것은 민족, 얼, 정신,

그리고 이렇게 성스럽고 가치 있기에 이것들은 개인들에게 권위 있게 부여될 수 있다. 뒤르켐은 의례 참여자들이 공동체로부터 “그(들)에게 부과된 어떤 행동 양식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¹⁴⁾ 그렇다면 이때 사회는 단지 상상된 공동체만이 아니라 도덕체계 혹은 도덕적 힘으로서의 사회(society as a moral system or moral force)이기도 하다. 뒤르켐은 이러한 집합 행위를 거쳐 출현하게 된 사회를 “도덕 공동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¹⁵⁾

뒤르켐의 이 같은 논의를 호주 아룬타 부족의 연구에서 현대 사회로 가져온 사회학자가 있는데 바로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이다. 그는 뒤르켐이 가졌던 질문을 미국 사회에 적용하여 연구하였는데, 이는 미국 사회 역시 다양한 인종, 언어,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벨라의 연구를 살펴보면 현대 사회에서 집합 의례의 역할이 무엇인지 밝혀진다. 벨라가 주목한 의례는 특별히 미국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던 시기이다. 독립운동, 흑인해방운동(남북전쟁), 쿠바 위기 등이 그 예들이다. 벨라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지도자들¹⁶⁾이 출현하여 국가 차원의 집합 행위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자칫 위기와 분열에 빠질 수 있었던 공동체가 이를 통해 통합되면서 해당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다.¹⁷⁾ 이러한 집합 의례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은 국가 상징들로, 이것은 아룬타 부족의 토tem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 상징에는 미국 국기나 자유의 종과 같이 가시적인 상징도 있고 애국가, 구호, 이야기, 국경일과 같은 추상적 상징도 있다. 집합 의례를

역사, 규범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14) 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노치준, 민혜숙 역,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서울: 민영사, 1992), 296.

15) 위의 책, 81.

16) 예를 들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존 F. 케네디 등이다.

17) 이철, 위의 책, 187-189.

통해 이러한 상징들은 성스럽고 중요하게 간주되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숭상을 받은 것은 ‘미국’이라는 공동체였다. 물론 이 공동체는 상징을 통해 생성된 ‘상상된 공동체’이었다.¹⁸⁾ 미국의 가치, 신념, 규범, 질서 등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그 결과 구성원들에게 호소되었다. 벨라는 이러한 사례가 이전의 미국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된다고 주장한다.¹⁹⁾ 그리고 이를 ‘시민 종교’(civil religion)라고 칭하였다. 이 종교가 본질적으로는 종교가 아니나 그 기능이 토렘종교의 그것과 같다는 관점에서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발전한 뒤르켐 이론은 이후 후기뒤르켐주의자들에 의해 보다 세분화되고 정교한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들은 의례, 상징, 도덕뿐만 아니라 코드, 서사, 성숙 분류체계, 감정 등도 언급하면서 이것들이 개인의 의식이나 행위에 미치는 결과를 연구하게 되었다.²⁰⁾ 그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의례의 외연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즉 의례가 특정한 장소, 시간, 인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룬타 부족의 경우 토렘 의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장소, 시간, 인원들이 참여하여 진행했다. 시민종교론도 그러하다. 그러다 보니 의례나 집합행위를 일정 시공간에서만 발생하는 행위로만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외연이 확장된 의례 개념은 이전의 시공간 테두리를 넘어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함께 특정 지역에 모여 집합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회의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어떤 유사한 행위가 산재하여 나타난다면 그것을 집합 행위, 집합

18) 벨라는 ‘상상된 공동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 글의 논지를 따라 그의 이론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첨언되었다.

19) Robert Bellah, *Beyond Belief: Essays on Religion in a Post-Traditional World* (New York: Harper & Row, 1970), 181.

20) 이에 대해서는 Jeffrey Alexander, *The Meanings of Social Life: A Cultural Sociology*, 박선웅 역,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과주: 한울, 2007)과 최종렬 위고 옮김, 『뒤르켐주의 문화사회학: 이론과 방법론』(서울: 이학사, 2007)을 참조하라.

표현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그 행위에 참여한 개인들은 그 행위가 제공하는 집합 감정·비록 집합 흥분의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집합 의식으로 발전된다. 그리고 이 의례 행위의 결과는 전과 동일하다. 집합 의례와 관련하여 수반된 상징들을 통해 ‘상상된 공동체’가 구성되고 이 공동체의 가치, 질서, 규범, 신념, 이상 등이 그 행위 참여자들에 의해 재확인되어 수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한국 사회에서 찾아본다면 추석이나 구정 시 나타나는 집합 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사회 전역에서 각종의 집합 행위가 재연된다. 재래시장 방문, 선물 구매 및 택배, 요리, 귀성, 귀향, 제사, 성묘, 옷놀이 등 전국이 이러한 행위로 만연된다. 이 집합 의례는 한국 사회를 효나 가족을 중시하는 혈연 공동체로 변모시키면서 가족, 혈연 혹은 지역 연고와 관련된 가치와 규범들을 사람들에게 재확인시켜준다.

사고 전 버팔로 크릭에서 형성되었던 공동체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된 상상의 공동체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오랫동안 동일한 집합 행위를 반복하면서 살아왔다. 주민 대부분이 그곳 석탄 회사(Pittston Coal Company)에 고용되거나 그와 연관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함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한다. 퇴근 후에는 슈퍼마켓을 들르고, 식당을 가고, 친구들을 만난다. 주말에는 가족과 친구들끼리 야외활동을 즐기고 일요일에는 교회를 간다. 이들은 후기 뒤르켄주의자들이 의례로 간주한 행위들을 수행하면서 상상된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있었고, 이 공동체에 속한 가치와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사라진 것이다. 사회심리학자 에릭슨은 이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비유적으로 말해 버팔로 크릭 집단과 같은 공동체는 유기체와 견줄 수 있다.....그러나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은 은유의 영역에 빠지는 위

힘부담을 줄 수 있다. 공동체는 [유기체와 달리] 심장이나 힘줄, 중추신경이 없다. 공동체는 고통을 느끼거나 이성이 있거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비유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콘서트에서 동일한 리듬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군중들을 생각해 보자.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개별적 개인으로보다는 집단으로 경험한다. 요컨대 개인은 자신의 것을 집단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라는 저장소에 자신의 ‘자산’을 저장시키고, 그 후 일상생활에서 필요시 그 비축한 ‘자산’을 꺼내 쓴다. 따라서 만일 버팔로 크릭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공동체가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전에 공동체 저장소에 넣어두었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감정적으로 비어있으며 애착을 상실했고 자신감과 확신을 잃어버렸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마치 세포가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만일 신체가 없어진다면 이전처럼 그 에너지를 필요한 형태로 변화시켜 세포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²¹⁾

버팔로 주민들은 이러한 공동체를 상실한 것이고, 그로 인해 외부의 도덕적 목소리라는 ‘자산’을 활용할 수 없었고, 자연히 도덕적 혼란이나 무의미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회고했던 이전의 ‘안정되고, 정직하고, 편안한 삶’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들을 다시 이전 수준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적어도 이상의 주장에 근거해 볼 때 개인적인 노력이나 마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상상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때 가능해진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의 그곳에 그런 공동체가 없었고 따라서 ‘도덕적’ 개인도 없었다. 이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가치나 규범을 ‘성스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집합 의례도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지 남아있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 뿌리를 잃고, 이제 “인생이 말라버린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있는 개인들뿐이

21) Erickson, 위의 책, 193-194.

다.²²⁾ 결국 그곳 주민들이 겪은 외상은 재난 자체의 영향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상실된 공동체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제 상징, 상상, 집합 의례를 통한 공동체 형성의 예를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어 상징과 상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라강의 이론에 근거해 상상된 공동체의 본질을 알아보자. 그리고 이것이 상상된 것이기에 갖게 되는 한계성을 라강의 실재계 이론으로 고찰해 보자. 앤더슨은 ‘imagined community’라고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때로 상상된 공동체 혹은 상상의 공동체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V. 상상의 공동체: 앤더슨과 라강

1.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론

앤더슨은 민족주의의 생성과 전파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상상의 공동체 개념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민족이란 원초적인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집단이라고 간주된다. 그리고 그 시대적 기원도 고대로부터 유래되는 것으로 본다.²³⁾ 그러나 앤더슨은 이러한 민족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²⁴⁾ 민족은 근대 자본주의 발전과정 중 나타나게 된 하나의 사회 문화 현상으로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족은 특정 시기에

22) 위의 책, 194.

23) “역사가들의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민족들은 근대성을 가진 반면, 민족주의자들의 주관적인 눈으로 볼 때 민족들은 고대성을 지녔다.”(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2004), 24)

24) 민족이라는 개념은 모호한 개념이며 정확한 정의가 쉽지 않다. 그것은 혈족, 부족, 동족, 겨레, 국가 등의 개념과 겹치거나 겹치지 않는 개념이다. 앤더슨은 “민족주의에 관한 가장 훌륭하고 포괄적인 영문 교과서 저자”인 휴 시튼왓슨(Hugh Seton-Watson)의 연구 내용, 즉 “이렇게 나는 민족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를 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떠밀리게 된다.”는 지적을 인용하면서 민족 개념의 문제점을 피력하였다.(위의 책, 21)

특정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구성되고 의미가 부여된 “특수한 종류의 문화적 조형물”로, 그것은 상상된 정치 공동체라는 것이다.²⁵⁾ 이런 의미에서 그는 “민족은 출생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²⁶⁾

그렇다면 이렇게 상상된 공동체가 출현하게 된 과정은 무엇인가? 앤더슨은 의례(ritual)나 집합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대중의례(mass ceremony)를 언급한다. 그가 언급한 대중 의례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것은 뒤르켐의 집합 의례와 동일한 의미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앤더슨은 공동체가 상상되는데 있어 기여하는 두 가지 형태의 대중 의례에 주목하는데 그것은 소설과 신문이다. 이중 신문에 대해서 고찰해보자. 앤더슨은 근대 자본주의 발달에서 나타난 괄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인쇄술의 발달, 혹은 그의 용어를 빌리면 인쇄자본주의다. 이러한 일은 이전에는 없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제 신문은 넓은 범위의 영역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례를 수행케 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앤더슨은 신문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신문은 현대인에게 아침 기도의 대응 역할을 한다고 헤겔이 관찰했듯이 대중의례의 의미는 역설적이다. 이 대중의례는 조용한 사적인 시간에 머리를 식히면서 행해진다. 그러나 각자는 그가 행하는 의례가 수천의(혹은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동시에 반복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만 그 사람들의 신원은 전혀 모른다. 더욱이 이 의례는 하루 한나절의 간격으로 끊임없이 반복된다. 세속적이고 역사적으로 시간이 측정되는 상상의 공동체에 대해 이보다 더 생생한 다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동시에 신문독자는 자신이 보는 신문과 똑같은 복사본을 전철, 이발소, 자기 거주지의 이웃들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상상된 세계가

25) 위의 책, 23.

26) 위의 책, 260.

눈으로 볼 수 있게 일상생활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계속 확신하게 된다.....
[신문은 현대 국가의 각인특징인 익명성에 대해 공동체의 놀랄 만한 확신을 창조하면서 현실 속에 조용히 계속적으로 침투해 들어온다.²⁷⁾

앤더슨은 또한 벨라가 주창한 시민종교와 유사한 집합행위를 언급하면서 상상의 공동체의 형성 과정을 서술하기도 한다.

국경일에 불리는 국가를 예를 들어보자. 아무리 가사가 진부하고 곡이 평범해도 국가를 부르는 데서 동시성을 경험할 수 있다. 바로 그 순간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곡조에 맞추어 같은 구절을 소리내어 부른다.....라마르세예즈(프랑스의 국가), 춤추는 마틸다(오스트레일리아의 국민가요), 인도네시아 리아를 부르는 것은 화합의 기회, 상상의 공동체가 메리아치며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화음은 얼마나 사심 없음을 느끼게 할 것인가! 만일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그 때 다른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 해도 그들이 누구인지, 어느 곳에서 노래하고 있는지 모른다. 상상된 소리만이 우리 모두를 연결해 주고 있다.²⁸⁾

이상의 글들을 뒤르켐의 개념으로 분석하면, 집단적 신문 읽기와 국경일 국가 제창은 집합 표현에 해당되며, 이런 집단 표현을 통해 개인들은 개인감정을 넘어-혹은 '사심 없음'을 느끼며-집합 의식으로 들어가 자신들로 구성된 상상의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²⁹⁾

한편, 이 상상된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정은 흥미롭게도 강한

27) 위의 책, 61-62.

28) 위의 책, 188.

29) 상상의 공동체에 관한 일본의 연구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오사와 마사치, 김선화 역, 『내셔널리즘의 역설: 상상의 공동체에서 오타쿠까지』(서울: 어문학사, 2014)와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세계공화국으로』(서울: 도서출판 b, 2007)를 참조하라.

애착심이다. 이 공동체가 상상의 발명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이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갖는다고 앤더슨은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 ‘발명품’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기도 한다. 이 애착심의 발로는 무엇보다도 개인들 간의 연결 방식에 기인한다. 즉, 상상의 공동체는 서로 모르거나 알아도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개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데, 이 때 이들의 연결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으로 포장한다. 이는 이러한 연결이 선택이 아니라 필연으로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필연은 개인들을 강하게 결속시켜 주며 필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운명적 성격을 부각시켜 준다. 여기서 공동체를 위한 애착과 희생이 가능케 된다. 이러한 애착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존재, 가치, 이상, 규범, 질서 등을 옹호하고 따르게 만든다. 공동체는 이제 “도덕적 엄숙함”을 지니게 된 것이다.³⁰⁾ 이러한 애착심이 소속감과 연결되고 소속감이 의존감과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는 뒤르켐과 벨라가 자신들의 집합 의례 연구를 통해 구상한 공동체의 모습과 유사하다. 다만, 뒤르켐도 벨라도 그리고 앤더슨도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는 관심과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그 공동체가 변화되거나 파괴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이론은 버팔로 크릭의 재난이 가져온 결과를 충분히 설명해줄 수가 없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붕괴가 개인의 삶(도덕적 삶 포함)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해 줄 수가 없다. 단지 공동체가 개인을 넘어 혹은 개인 위에 존재하였고, 개인들은 이 공동체에 애착심, 소속감, 의존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해체되었을 때 개인들이 심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정도의 진술에 그칠 뿐이다.

30) 위의 책, 186-187. 물론 이러한 공동체의 이념과 가치들에 반하는 개인이나 다른 공동체에게는 강한 애착심에 상응하는 증오심이 작동된다. 이것 역시 도덕 공동체가 갖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 같은 부족분은 라캉의 이론으로 보완될 수 있다. 라캉의 따르면 상상의 공동체는 상징계와 상상계의 합작 효과이며, 공동체의 파괴는 이 효과에 대한 실재계의 침입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집단 외상으로 연결된다.

2. 라캉의 상징계, 상상계, 실재계론

상징계, 상상계, 실재계는 개인이 세상, 타인,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다. 먼저, 상징계는 무엇보다도 기호 혹은 언어의 세계이다. 인간은 언어 안으로 태어난다. 언어는 존재의 집 혹은 존재의 감옥이다.³¹⁾ 인간의 인식과 경험은 언어에 의해서 한계 지워지면서 제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언어가 존재하므로 일정한 인식과 경험도 가능하게 된다. 때로 상징계를 언어의 체계로만 간주하기보다는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볼 필요가 있다. 곧 언어로 구성된 담론이나 질서의 체계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자본주의적 상징계, 성차별적 상징계를 언급할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상징계를 통해 세상, 타인,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이 때 상상계가 작동한다. 상상계는 “시각, 청각, 후각과 같은 모든 종류의 감각과 환상의 영역”이다.³²⁾ 이 영역을 통해 개인은 상징계에 접근한다. 따라서 상상계를 ‘인식의 도구’라고도 칭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언어나 담론을 상상계를 통해 인식하기 때문이다.

상징계와 상상계는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개별적 존재는 실제 개인의 삶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만일 상상계가 없다면 개인에게 남는 것은 단지 개인 외부에서 타자같이 존재하는 기호체계일

31) Jacques Lacan, 권택영 역, 민승기, 이미선, 권택영 역, 『욕망 이론』(서울: 문예출판사, 1994), 53.

32) Bruce Fink, *A Clinical Introduction to Lacanian Psychoanalysis*, 맹정현 역, 『라캉과 정신의학』(서울: 민음사, 2002), 156.

뿐이다. 만일 상징계가 없다면 아무런 질서도 의미도 없는 상상의 나라를 무작위로 펼치는 개인만 있다. 후자의 전형적인 사례가 정신병에서 발견된다. 정신병은 정상적인 상징계에 편입되지 못한 개인이 갖게 되는 질병이다.³³⁾ 정신병이 과대망상이라는 증상을 갖게 된 것도 이 같은 요인 때문이다. 상징계의 ‘간섭’이나 ‘안내’ 없이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이 정신병의 증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상상계는 상징계에 의해 규제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은 상징계와 상상계가 상호 연결되어 산출한 효과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현실 세계이다. 라캉의 이론에서 현실 세계는 실제 세계와는 다른 세계이다. 전자가 상상된 세계(혹은 상상된 공동체)인데 비해 후자는 상상된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후자는 개인에게 전자만큼 분명히 인식되지 못하는 세계이다. 따라서 후자의 존재는 후자가 전자의 영역에 나타났을 때에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세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후자는 전자 ‘밖에’ 존재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현실 세계는 그 속성이 상징계와 상상계에 의해 상상된 세계이기 때문에 후자의 침입에 의해 쉽게 부서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집단 외상으로 연결된다. 버팔로 크릭의 예를 사용하여 설명하면, 재난 이전에 그곳 주민들이 상상하며 안주하여 살았던 세상이 현실 세계이고, 재난 후에 ‘깨닫게 된’ 세상, 알게 된 세상이 실제 세계이다. 재난 이전에 그곳 주민들은 후자를 전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삶의 ‘실재’ 혹은 세상의 ‘실재’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로인해 외상을 갖게 된 것이다. 댐 붕괴는 일종의 실재계의 침입이고 그 전까지 실재계는 그들에게 인식되지 않았을 뿐 항상 그들과(그들의 세계와) 함께 있었다.

33) Anika Lemaire, *Jacques Lacan*, 이미션 역, 『자크 라캉』(서울: 문예출판사, 1994), 333.

그렇다면 실재계는 무엇이고 그것의 침입은 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외상을 일으키는가? 실재계는 상징계가 완벽하지 못해 생긴 부분이다. 완벽한 상징계는 인간 세상에 현존하지 않는다. 세상과 인간의 모든 것을 기호화(의미화)시킬 수 있는 상징계는 부재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상징계가 포획할 수 없는 부분이 세상, 타인, 자기 자신에게 존재하게 된다. 이 남은 잉여분이 실재계가 된다. '상징계가 포착한지 못한 실재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상징화를 거부하는 실재계'라고 서술할 수도 있다. 이 실재계는 상징화와 상상화를 거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기에 의미화 되지 않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다시 말해 무의미와 혼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이 실재계가 상징계와 상상계가 만든 상상된 현실에 침입하면 상상의 공동체는 와해되면서 의미 혼란 곧 아노미 상태를 맞게 된다. 이로 인해 개인들은 그간 알고 있거나 믿고 있었던 질서, 규범, 가치, 믿음에 대해 혼동을 경험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전과 같이 동일한 신뢰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무의미성, 무력감, 방향상실, 의지 상실 그리고 안정감 상실 등이 개인들을 위협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버팔로 크릭의 생존자들이 보여준 불안, 공포, 무감각증, 무력감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실재계의 침입의 효과를 이상과 같이 설명하면서 아노미나 외상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신병은 상징계에 이상이 있을 때 발병하는 증상이다. 상징계가 부재하다면 상상계는 어떤 안내나 규제 없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³⁴⁾ 혹은 거꾸로 상징계가 부재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상상할 수 없다.³⁵⁾ 물론 라캉의 정신의학에 의하면 정신병은 오이디푸스시기에 유아

34) 정신병 중 편집증(과대망상증)이 여기에 속한다.

35) 정신병 중 분열증이 이에 속한다 하겠다.

가 아버지의 법을 따라 상징계에 편입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질병이다.³⁶⁾ 따라서 정상적으로 상징계를 수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실재계가 침입해도 정신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재계에 의한 상징계의 침입은 상징계의 위상과 힘을 급작스럽게 혼란시키고 약화시키기 때문에 비록 정신병이 발흥하지는 않지만 상징계가 부재 시 발생하는 정신병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실재계의 침입이 어느 정도 수준의 타격을 개인들에게 줄지 가늠해 볼 수는 있다.

라깡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상태로부터의 탈출이나 극복은 상징계와 상상계의 역할이 다시 개인들에게 회복될 때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상징계와 상상계가 만든 상상된 현실 속으로 개인들이 다시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구는 일반적으로 실재계의 침입으로 인해 발생한 무의미를 상징계가 새로이 포섭하여 그것을 의미화 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직면한 고통이나 죽음에 대해 필요한 이유나 설명이 제시됨으로써 혼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경우이다. 혹은 상징계와 상상계가 제시하는 상상(이 경우는 오히려 망상)을 속히 수용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상징계와 상상계가 실재계의 침입을 처리할 만큼의 대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상상계는 개인 차원에 속하는 것이기에 궁극적으로 실재계의 ‘난입’ 그리고 그로인한 무의미나 혼란을 감당해야 할 주체는 상징계이다. 여기서 상징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된다. 상징계가 가능해야 상상계와 함께 현실 세계(즉, 상상된 공동체)의 복원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개인들은 이 현실 세계를 근거로 의미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

36) 이에 대해서는 Fink, 위의 책, 7장을 참조하라.

VI. 도덕을 위한 공동체의 존재와 역할

뒤르켐은 개인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공동체의 역할을 보여 주기 위해 매우 개인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자살을 연구하였다.³⁷⁾ 자살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실행한 행위라고 인식된다. 설령 불가피한 상황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자살을 결정한 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나 뒤르켐은 이러한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살에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외적 차원, 곧 사회적(공동체적) 차원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프랑스에서 집계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하면서 개인 외적 요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가운데 한 연구가 개신교 집단과 가톨릭 집단 간의 차이이다. 뒤르켐은 자료를 통해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들보다 자살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해당 개인이 아니라 집단 공동체에서 기인된다고 하였다. 가톨릭 집단은 개신교 집단보다 사회적 연대성이 강하였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통합성도 보다 강하다. 이런 상태에서 가톨릭 교회의 도덕이나 규범은 개인들에게 뚜렷하고 강력하게 작용하여 그들의 자살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뒤르켐은 특히 집단의 연대감, 소속감, 통합 등의 와해나 약화로 생기는 도덕과 규범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자살을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칭하였다.³⁸⁾ 이 외에도 그는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운명론적

37) 이에 대해서는 Emile Durkheim, *Suicide*, 황보종우, 『자살론』(서울: 청아, 2008)을 참조하라.

38) 이에 대해서는 위의 글, 5장을 참조하라.

자살을 언급하는데, 이것 역시 모두 개인과 공동체간의 통합성 때문에 발생한다.³⁹⁾ 예를 들어, 이기적 자살은 공동체의 통합이 약해 개인이 집단에 견고히 결속되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자살이다. 이타적 자살은 개인이 집단에 지나치게 결속되어 집단의 가치를 위해 자살하는 경우이다.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렇듯 매우 개인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는 자살도 실은 사회의 구속력에 규제되고 있다. 사회의 연대성, 통합성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 중요성이나 강도가 결정되는 도덕과 규범들이 개인의 자살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적 삶이 영위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의 존재와 역할이 필요하다. 비록 그것이 상상된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의 존재 및 유지하는 개인의 도덕적 삶을 위해 긴요한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사실을 뒤르켐의 토렘부족의 종교 의례 연구, 벨라의 시민종교론,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그리고 라강의 상징계와 상상계가 만든 ‘현실 세계’ 분석에서 확인하였다. ‘현실 세계’는 개인에게 도덕, 가치, 규범 등을 제공하는 공급처이다. 상징계와 상상계 없이는 어떤 도덕적 삶도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이상의 주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약점이 있다. 곧 공동체의 역할은 주목되지만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 공동체가 어떤 도덕적 내용과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단지 공동체만 존재하고 유지된다면 개인의 도덕적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주장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뒤르켐의 구조기능주의가 종종 일으키는 단점, 곧 체제 유지적인 보수적 기능주의를 떠오르게 한다. 아룬타 부족이 토렘종교에 의해 통합 유지되었고, 동일한 일이 미국 사회와 시민종교의 관계에서 발견된다.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

39) 위의 책, 2, 3, 4장을 참조하라.

체론 역시 사회 통합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고, 다만 라캉의 경우 실재계의 존재에 의해 이 문제가 극복된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것과 연결되어 있으나 특히 집합 의례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이다. 집합 표현을 통해 성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 숭배된다. 아룬타 부족의 경우 그것은 토템이었는데, 그러나 그 토템은 단지 상징이었고 궁극적으로 숭상된 것은 부족 공동체이다. 여기서 의례의 부정적 기능이 도출될 수 있다. 과연 그 ‘토템’ 혹은 그 ‘토템’으로 인해 숭배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숭상 받을 만한 ‘좋고 바람직한’ 대상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집합 행위를 통해 궁극적으로 물질이나 경제가 ‘성스럽고 가치 있는’ 것으로 숭배될 수 있다. 일례로,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식 매장에서는 집합행위가 매일 반복되고 있다. 이 의례 속에서 주가 상승이나 실적은 ‘성스럽고 가치 있는’ 것으로 부상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식이나 주가가 상징하는 부, 물질, 성공, 경제 등이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물신주의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라고 하겠다.⁴⁰⁾

이런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개인의 도덕성을 가능케 하는 공동체가 실은 ‘상상된 공동체’이며, 이 상상된 공동체는 개인들이 집

40) 한국 사회의 예를 살펴본다면,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매일 동일한 의례를 계속 반복한다. 등교를 하고 수업을 하고 시험을 치고 조회를 하고 학원가고 숙제하고 표창을 받고 진학한다. 비록 이러한 행위들이 시공간적으로 다르게 수행되지만 이 행위는 우리 사회 전역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집합 표현을 통해 산출되는 ‘성스럽고 가치 있는’ 질서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부, 성적, 학벌 제일주의 같은 것들이다.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이 의례를 통해 이러한 가치나 질서가 학생들에게 계속 재확인되며 그들의 의식 속에 공고히 자리 잡게 된다. 물론 공부의 가치나 의미를 교사, 부모, 이웃들로부터 구두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리들은 오히려 공부나 성적에 대해 반감이나 반대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성적, 공부, 학벌 지상주의는 집합 의례를 통한 집단적 승인이라는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중요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후기 뒤르케임주의자들의 주장이다.

합 의례 과정에서 상징들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상상된 공동체로부터 오는 권위의 목소리를 따라 도덕적 삶을 유지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과거나 현재 혹은 호주, 미국, 인도네시아 등 시공을 넘어 언제 어디든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아룬타부족 같은 종교 집단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종교나 민족공동체 같은 일반 집단에서도 나타나고, 버팔로 크릭의 경우처럼 적은 규모의 지역 공동체에서도 발견된다.

VII. 나가는 말

오늘날 도덕성이 약화되었다는 지적들이 자주 언급된다. 개인들이 더 이상 이전만큼 도덕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방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경제우선주의나 물질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도덕 교육의 부재, 가족의 해체 등이 자주 이유로 제시되곤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약화나 부재가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만일 이런 관점에서 도덕성 회복이나 도덕적 개인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이 글의 논지에 맞게 공동체의 건고성 혹은 통합성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공동체의 생성과 유지를 가능케 하는 집합의례의 활성화 여부이다. 이것이 작동되고 있다면 공동체는 가능해 지고, 이 공동체가 유지된다면 이는 외부의 권위의 목소리가 되어 개인의 도덕성 함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의례의 이러한 역할은 보수적 기능으로 흐를 수 있고, 보편적 관점에서 보기에 바르지 않은 가치나 질서가 개인들에게 주입될 수 있다. 그러나 분석적 입장에서만 보면 의례와 상징이 집합행위를 통해 활성화 될 때

상상의 공동체를 통해 도덕성의 함양은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버팔로 크릭 지역에서 만일 재난 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집합 의례가 다시 활성화되었다면 주민들은 도덕적 혼란 및 무력감에서 나올 회복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버팔로 크릭 사태는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의례가 활성화된다면 다른 미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 가능하다. 교회도 분명 상징과 의례를 가지고 있으며, 반복되는 의례를 통해 상상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신자들에게 권위 있는 도덕적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 교회가 이러한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는 본 논문의 주장에 따라 무엇보다도 집합의례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지 집회의 모임 횟수가 많아진다고 하여 이 역할을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그 의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합 표현, 집합 감정, 집합 의식의 강도 여부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의례 안에서 강하게 표출되고 형성될 때 교회의 도덕적 가르침은 힘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의례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의례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의 활성화가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이러한 요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의례에서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1)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교회의 예배를 연구한 글로는 미국 신학계에서 논의한 의례와 도덕과 관련된 연구들을 참조하라. 대표적으로 E. Byron Anderson와 Bruce T. Morrill SJ가 엮은 책인 *Liturgy and the Moral Self: Humanity at Full Stretch Before God* (Collegeville, Minnesota, Liturgical Press, 1988) 그리고 문시영,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비추어본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79권, 2012를 참조하라. 한편, 마을 공동체, 일상성, 윤리도덕 등을 다루고 있는 김혜령, 「마을공동체운동과 마을교회」,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7권, 2013의 연구도 본 연구와 연관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글이다.

참고문헌

- 강응섭. 『자크 라캉의 『세미나』 읽기: 파리 생탄병원에서 행한 세미나들(1953. 1. 13~63. 7. 3)』. 서울: 세창미디어, 2013.
- 김혜령. 『마을공동체운동과 마을교회』.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7권, 2013.
- 오경환. 『종교사회학: 개정판』. 서울: 서광사, 2006.
- 이철. 『욕망과 환상: 한국교회와 사회에 관한 문화사회적 탐구』. 서울: 시대의 창, 2014.
- 임진수. 『상징계-실재계-상상계』. 서울: 파워북, 2012.
- 최종렬 엮고 옮김. 『뒤르켐주의 문화사회학: 이론과 방법론』. 서울: 이학사, 2007.
- 문시영. 『하우어위스의 윤리에 비추어본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79권, 2012.
- Alexander, Jeffrey. 박선웅 역. 『사회적 삶의 의미: 문화사회학』. 과주: 한울, 2007.
- Anderson, Benedict.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2004.
- Dor, Joel. 홍준기, 강응섭 역. 『라캉 세미나 · 에크리 독해 I』. 서울: 아난케, 2009.
- Durkheim, Emile. 노치준, 민혜숙 역.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민영사, 1992.
- _____, 황보중우. 『자살론』. 서울: 청아, 2008.
- Fink, Bruce. 맹정현 역. 『라캉과 정신의학』. 서울: 민음사, 2002.
- Homer, Sean. 김서영 역. 『라캉 읽기』. 서울: 은행나무, 2005.
- Lacan, Jacques. 권택영 엮음. 민승기, 이미선, 권택영 역. 『욕망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4.
-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세계공화국으로』 서울: 도서출판 b, 2007.
- 오사와 마사치. 김선화 역. 『내셔널리즘의 역설: 상상의 공동체에서 오타쿠까지』 서울: 어문학사, 2014.
- Lemaire, Anika. 이미선 역. 『자크 라캉』. 서울: 문예출판사, 1994.
- Winnicott, Donald. 이재훈역. 『놀이와 현실』.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Anderson, E. Byron & Morrill SJ, Bruce T. ed., *Liturgy and the Moral Self: Humanity at Full Stretch Before God*. Collegeville, Minnesota, Liturgical Press, 1988.

Bellah, Robert. *Beyond Belief: Essays on Religion in a Post-Traditional World*. New York: Harper & Row, 1970.

Erickson, Kai. *Everything in Its Path: Destruction of Community in the Buffalo Creek Flood*.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6.

논문투고일: 2015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15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4일

• 국 문 초 록 •

개인의 도덕성을 형성,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외부 공동체는 '상상된 공동체'로, 이 공동체는 상징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수행되는 집합 의례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 공동체는 비록 상상된 공동체이지만 구성원들에게 끼치는 도덕적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 힘의 존재와 크기는 상상된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약해질 때 잘 드러난다. 도덕적 혼란 혹은 무규범 상태가 확연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의 속성이 상상의 산물이기에 공동체는 쉽게 흔들리고 해체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상상된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이 개인의 도덕적 삶을 위해 필요하다는 역설이 제기될 수 있다. 교회 역시 상징과 의례를 통해 상상된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회는 개인들에게 권위 있는 도덕적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

주제어: '상상의 공동체', 도덕성, 의례, 앤더슨, 라캉
